

『朱文酌海』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Jumunjakhae*

권 용 인 (Kwon, Yongin)*

◁ 목 차 ▷

- | | |
|---------------------|-------------------|
| 1. 緒 言 | 3.2 校勘 |
| 2. 『朱文酌海』 編纂의 背景 | 4. 『朱文酌海』의 刊行과 版本 |
| 3. 『朱文酌海』의 編成體制와 校勘 | 5. 結 論 |
| 3.1 編成體制와 收錄方式 | <참고문헌> |

<초 록>

본 研究는 愚伏 鄭經世(1563~1633)의 『朱文酌海』를 고찰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朱文酌海』는 愚伏이 광해군 14년(1622)에 방대한 『朱子大全』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편찬한 節要書 형태의 選本이다.
- (2) 愚伏은 『朱子大全』의 <詞>와 <賦> 및 <詩>를 제외한 거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國家를 經營하는 治體와 관련되거나 日常에서 수용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朱文酌海』에 수록하고 있다.
- (3) 『朱文酌海』의 편성체제는 1차적으로 『朱子大全』의 체제를 따르고 2차적으로 『朱子書節要』의 편차방식을 따르고 있어, 愚伏이 退溪의 道統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朱文酌海』의 문헌학적의 편집수록은 保存과 選取 및 刪去·組合(編輯)·校正·補完 등의 다양한 편집방법을 사용하여 愚伏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5) 광해군 14년(1622)에 편찬된 『朱文酌海』는 인조 26년(1648)에 參判 李昇에 의하여 처음으로 嶺南觀察營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유통되었으며, 효종 4년(1653)에 同春堂 宋浚吉이 流通本에다 <跋文>만을 새로이 더 새겨 붙여서 重印된 판본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유통되었다. 그러다가 현종 13년(1847)에 尙州의 愚山書院에서 “丁未仲夏愚山新刊”의 刊記가 수록된 重刊本이 새로이 출현되면서 다시금 후학들의 寶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要語: 朱子大全, 朱文酌海, 愚伏, 鄭經世

* 대림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강사(kwoninsan@hanmail.net)

접수일: 2017년 8월 21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Jumunjakhae* by Jeong Kyeong-Se, Ubok.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Jumunjakhae* is abstract of extensive study *Jujadaejeon* published by Ubok in King Gwanghae 14 in order to help understand easily.
- (2) Ubok studied every section to extract important sections entirely or partially in regards to governing and studies.
- (3) *Jumunjakhae*'s organization method initially follows *Jujadaejeon* and uses *Jujaseojeolyo* as secondary organization method, which indicates that Ubok successes Toegyeo's study and belief.
- (4) Ubok used many methods in his study such as preservation by including the entire document, partial extraction of important contents, exclusion of any immaterial contents, compilation and combination of partial/full contents, grouped by the similarities, and append and annotate errata as necessary.
- (5) the initial compilation *Jumunjakhae* (1622) was published on woodblock by Lee Man, and was followed by republication done by Song Jun-Gil where he updated publication record. Then, it was published again by Usanseowon(愚山書院) in King Heonjong 13 (1847) which is still available today.

Key words: *Jujadaejeon*, *Jumunjakhae*, Ubok, Jeong Kyeong-Se

1. 緒 言

朱子の 시문집인 『朱子大全』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始發은 退溪 李滉(1501~1570)의 『朱子書節要』에서 비롯되었다. 이후로 『朱子大全』을 재편집하거나 주석한 일련의 연구서는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편찬되고 간행되었다.

이러한 『朱子大全』의 재편집을 통한 편찬과 간행사업은 退溪의 뒤를 이은 영남학과와 栗谷 李珣(1536~1584)의 뒤를 이은 기호학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바, 그 대표적인 저술들이 바로 高峯 奇大升(1527~1572)의 『朱子文錄』과 愚伏 鄭經世(1563~1633)의 『朱文酌海』¹⁾ 등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朱子大全』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愚伏의 『朱文酌海』일 것이다. 그것은 退溪의 『朱子書節要』는 朱子の 『朱子大全』의 서간만을 대상으로 抄節하여 編輯한 것이며, 高봉의 『朱子文錄』은 『朱子大全』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편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제자인 宋庭璠(1532~1557)의 조력을 얻어 단기간에 편찬한 관계로 그 내용이 빈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 활자로 간행된 뒤로 후속의 활용기록도 전무한 상태에서 일본에 의하여 약탈되거나²⁾ 逸失되었기 때문이다.³⁾

『朱文酌海』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봉규 교수가 『朱文酌海』의 解題에서 愚伏의 학문활동과 『朱文酌海』의 編纂이 갖는 사상사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⁴⁾와 이동희 교수가 高峯 奇大升의 『朱子文錄』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소개⁵⁾하고 있을 뿐 『朱文酌海』의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朱文酌海』는 愚伏에 의해 광해군 14년(1622)에 최초로 편찬되었으나, 퇴계의 『朱子書節要』와 달리, 본인이 직접 편집이나 간행의 경위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 그 상세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朱文酌海』의 문헌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朱文酌海』의 분석을 통하여 編纂背景을 밝히고 『朱文酌海』 編纂과 刊行의 의의를 고찰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인 『朱文酌海』는 서울대학교 奎章閣의 影印本을 底本으로 하여 영조 47년(1771)의 完營版 『朱子大全』⁶⁾의 影印本⁷⁾과 비교하여 그 편성의 체제와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1) 柳鐸一, “『朱子書節要』 註釋의 脈絡과 그 註釋書들: 外來文獻의 韓國的 受容 II,” 『書誌學研究』 第5·6合輯(서울: 書誌學會, 1990), 7.

2) 李東熙, “高峯 奇大升의 『朱子文錄』 編纂과 당시 그의 思想의 一斷面,” 『儒敎思想研究』 第36輯(서울: 韓國儒敎學會, 2009), 205-230.

3) 본 연구의 주된 觀點은 『朱文酌海』에 있는 관계로 『朱子文錄』의 깊이 있는 論議는 생략하고자 한다.

4) 이봉규, “愚伏 鄭經世의 學問活動과 『朱文酌海』의 性格,” 『朱文酌海』 卷上(서울: 서울대학교 奎章閣, 2005), 7-28.

5) 李東熙, “高峯 奇大升의 『朱子文錄』 編纂과 당시 그의 思想의 一斷面,” 『儒敎思想研究』 第36輯(서울: 韓國儒敎學會, 2009), 205-230.

6) 朱熹 著, 『朱子文集大全』, 木板本. [全州]: [完營], 英祖 47(1771).

2. 「朱文酌海」編纂의 背景

「朱文酌海」는 愚伏이 광해군 14년(1622)에 「朱子大全」의 詞·賦·詩 등을 제외한 거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愚伏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손수 訂選하고 拔萃하여 편집한 ‘選本’이다. 따라서 「朱文酌海」의 저본이 되는 「朱子大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듯하다.

「朱子大全」은 중국 남송조의 거유인 朱子(1130~1200)의 문집으로 朱子가 생존하였던 淳熙 16년(1189)과 慶元 4년(1198)에 2차에 걸쳐 간행된 바 있다. 그리고 朱子의 사후에는 그의 季子인 朱在(1169~1239)가 遺命을 받들어 88권으로 편성·간행한 판본을 비롯하여 문인 黃士毅에 의하여 편찬된 「朱文公集」 50권본, 「宋史」〈藝文志〉에 수록된 〈前集〉 40권, 〈後集〉 91권, 〈續集〉 10권, 〈別集〉 24권의 도합 165권본 등이 있다. 그러나 台灣故宮博物院에 소장된 淳熙 16년(1189)에 麻沙에서 刊行된 「晦庵先生文集」은 〈前集〉 11권과 〈後集〉 18권의 도합 29권 이외에는 전하지 않고 있다.⁸⁾

현재 전해지고 있는 「朱子大全」은 咸淳 원년(1265)에 福建의 建安書院에서 간행된 「晦庵先生朱文公文集」이다. 이는 南宋의 嘉熙 3년(1239)에 王堦에 의하여 편집된 〈正集〉 100권과 淳祐 5년(1245)에 王遂에 의하여 편집된 〈續集〉 10권, 淳祐 10년(1250)에 徐幾에 의하여 편집된 〈續集〉 1권, 咸淳 원년(1265)에 余師魯에 의하여 편집된 〈別集〉 10권을 합친 도합 121권이며 朱子의 문집으로는 처음으로 간행된 것이다.⁹⁾

卷首, 正集 100卷48册, 續集 11卷2册, 別集 10卷2册, 遺集 2卷1册, 附錄 12卷6册, 共135卷60册: 四周雙邊, 半郭 25×18.4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花口, 上下向3葉花紋魚尾; 35.6×23.6cm.

改刊凡例: 萬曆乙卯百九十六年庚寅(1770) … 洪啓禧謹書.

校正凡例: 萬曆三年(1575) … 柳希春校進.

刊記: 辛卯(1771, 英祖 47)入梓 完營藏板.

7) 朱熹 著, 學民文化社 編, 「朱子大全」, 東洋古籍影印叢書(影印本), 全16册. 大田: 學民文化社, 2004.

8) 최경훈, “朝鮮前期 朱子著述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2號(서울: 書誌學會, 2009), 480-481.

9) 紀昀 等奉命撰, 「四庫總目」 卷159. 集部12. 「晦庵集」條.

“晦庵集一百卷續集五卷別集七卷 內府藏本 宋朱子撰 書錄解題載晦庵集一百卷 紫陽年譜三卷 不云其集誰所編 亦不載續集 明成化癸卯莆田黃仲昭跋 稱晦庵朱先生文集一百卷 閩浙舊皆有刻本 浙本洪武初取置南雍 不知輯於何人 今閩藩所存本 則先生季子在所編也 又有續集若干卷·別集若干卷 亦并刻之云云 是正集百卷 編於在手 然朱玉朱子文集大全類編稱在所編實八十八卷 合續集·別集乃成百卷 是正集百卷又不出在手矣 別集之首有鹹淳元年建安書院黃鏞序曰 先生之文 正集 續集潛齋實齋二公已鏤版書院 建通守餘君師魯 好古博雅 蒐訪先生遺文又得十卷 以爲別集 其標目則一仿乎前 而每篇之下必書其所從得 是別集之編 出餘師魯手 惟續集不得主名 朱玉亦云無考 觀鏞所序在度宗之初 則其成集亦在理宗之世也 此本爲康熙戊辰蔡方炳 臧眉錫所刊 眉錫序之 而方炳書後題曰朱子大全集 不知其名之所始 考黃仲昭跋及嘉靖壬辰潘潢跋 尚皆稱晦庵先生集 而方炳跋乃稱 朱子故有大全文集 歲月浸久 版已磨滅 則其名殆起明中葉以後乎 惟是潢跋稱文集百卷 續集五卷 別集七卷 與今本合 而與潢共事之蘇信所作前序 乃稱百有二十卷 已自相矛盾 方炳手校此書 其跋又稱原集百卷 續集十卷 別集十一卷 其數尤不相符 莫明其故 疑信序本作百有十二卷 重刻者偶倒其文 而方炳跋則繕寫筆誤 失於校正也 方炳跋又稱校是書時不敢妄有更定 悉依原本 即續別二集亦未依類附入 頗得古人刊書謹嚴詳慎之意 今通編爲一百一十二卷 仍分標晦庵集續集別集之目 不相淆亂 以存其舊焉.”

<表 1> 中國 刊行의 「朱子文集」 一覽¹⁰⁾

書 名	刊行主體	刊行時期	版 本 名	分 量	行 字 數
晦庵先生朱文公文集	王 埜	1239年	王埜 刊本	100卷	10行10字
晦庵先生朱文公文集	王 遂	1245年	續 集	11卷	10行18字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徐 幾	1250年	續 集	1卷	10行18字
晦庵先生朱文公文集	餘師魯	1265年	別 集	10卷	10行18字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宋元明代	閩本系刊本	正集 100卷 續集 11卷 別集 10卷	10行18字
晦庵先生文集		宋 代	浙 本	正集 100卷	10行19字
晦庵先生朱子大全	胡 緝 河 沈	1460年	天順本	正集 100卷 續集 11卷 別集 10卷	11行22字
晦庵先生朱文公文集	王 埜	1239年	王埜 刊本	100卷	10行10字
晦庵先生朱文公文集	王 遂	1245年	續 集	11卷	10行18字
晦庵先生朱文公文集	胡 岳 張大輪	1532年	嘉靖本	正集 100卷 續集 11卷 別集 10卷	12行22字
朱子文集大全	朱吾弼	1605年	萬曆本	正集 88卷 續集 11卷 別集 10卷	未 詳
晦庵先生朱文公文集	蔡方炳 藏眉錫	1689年	康熙本	正集 100卷 續集 5卷 別集 7卷	12行24字

그 후 建安書院 판본을 계승한 福建地方의 閩本系刊本과 浙江地方의 折本系刊本으로 나뉘어 覆刻과 補刻을 거듭하여 遞修本의 형태로 清朝 末期까지 여러 종류의 판본들이 간행되었다.¹¹⁾

10) 이는 崔彩基의 分析을 토대(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13), 20-21.)로 하여 ‘徐幾’의 <續集> 1권을 추가(朱熹 著, 學民文化社 編, 『朱子大全』, 冊1. p.3)하여 작성된 것이다.

11) 紀昀 等奉命撰, 『四庫總目』, 卷159. 集部12. ‘晦庵集’條.

“晦庵集一百卷·續集五卷·別集七卷 內府藏本 宋朱子撰 書錄解題載晦庵集一百卷·紫陽年譜三卷 不云其集誰所編 亦不載續集 明成化癸卯莆田黃仲昭跋 稱晦庵朱先生文集一百卷 閩·浙舊皆有刻本 浙本洪武初取置南雍 不知輯於何人 今閩藩所存本 則先生季子在所編也 又有續集若干卷·別集若干卷 亦并刻之云云 是正集百卷 編於在手 然朱玉朱子文集大全類編稱在所編實八十八卷 合續集·別集乃成百卷 是正集百卷又不出在手矣 別集之首有鹹淳元年建安書院黃鏞序曰 先生之文 正集·續集 潛齋·實齋二公已鏤版書院 建通守餘君師魯好古博雅 蒐訪先生遺文又得十卷 以爲別集 其標目則一仿乎前 而每篇之下必書其所從得 是別集之編 出餘師魯手 惟續集不得主名 朱玉亦云無考 觀鏞所序在度宗之初 則其成集亦在理宗之世也 此本爲康熙戊辰蔡方炳·臧眉錫所刊 眉錫序之 而方炳書後題曰朱子大全 不知其名之所始 考黃仲昭跋及嘉靖壬辰潘潢跋 尙皆稱晦庵先生集 而方炳跋乃稱 朱子故有大全文集 歲月浸久 版已磨滅 則其名始起明中葉以後乎 惟是潢跋稱文集百卷·續集五卷·別集七卷 與今本合 而與潢共事之蘇信所作前序 乃稱百有二十卷 已自相矛盾 方炳手校此書其跋又稱原集百卷·續集十卷·別集十一卷 其數尤不相符 莫明其故 疑信序本作百有十二卷 重刻者偶倒其文

中國에서 咸淳 원년(1265)에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 등 도합 121권의 『朱子大全』이 간행된 후,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렬왕 16년(1290, 至元 27)에 安珦(1243~1306)이 燕京에 머물면서 朱子書를 抄錄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으나 刊本이 전래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조선시대 세종조에 들어와서 비로소 통행된 기록이¹²⁾¹³⁾ 있다.

조선조에 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朱子大全』의 간행이 논의¹⁴⁾¹⁵⁾되었으나 중종 38년(1543)에 慕齋 金安國(1478~1543)의 주도로 校書館에서 최초로 간행된 바 있으며, 그 후로 선조 8년(1575)¹⁶⁾¹⁷⁾과 인조 13년(1635) 및 영조 47년(1771) 등 도합 4차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후로 우리나라에서의 朱子學研究는 退溪 이후로 嶺南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嶺南學派와 畿湖地域을 중심으로 하는 畿湖學派의 두 갈래의 학파로 나누어졌다.¹⁸⁾

『朱子大全』은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의 121권 95책으로 된 巨帙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초기에는 매우 드물게 통행되었으므로 비록 老師熟儒라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이에 이 거질의 『朱子大全』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학자들이 공부하기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이에 명종 11년(1556)에 退溪에 의하여 최초로 그 節要書인 『朱子書節要』의 편찬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학자들이 『朱子大全』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나마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¹⁹⁾

退溪는 『朱子書節要』의 서문에서 “무릇 사람이 학문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端緒를 열어 흥기할 곳이 있어야 진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적지 않은 천하의 영재들이 성현의 글을 읽고

而方炳跋則繕寫筆誤 失於校正也 方炳跋又稱校是書時不敢妄有更定 悉依原本 卽續·別二集亦未依類附入 頗得古人刊書謹嚴詳慎之意 今通編爲一百一十二卷 仍分標晦庵集·續集·別集之目 不相淆亂 以存其舊焉.”

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11年 5月 29(甲戌)日條.

“傳旨各道監司 道內有家藏國語 宋播芳資治通鑑源委·文苑英華·朱文公集·周禮·東巖証議等書者 備悉訪問 雖未成秩 并令進之.”

1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11年 6月 27(壬寅)日條.

“安東人尹杞 進朱文公集三十二卷 賜以弓矢褭鞋.”

1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9年 9月 3(戊子)日條.

“傳旨慶尙道監司 今送大全易書春秋 依性理大全例 刊板.”

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9年 10月 28(壬午)日條.

“傳旨全羅道監司 今送大全·詩·春秋 依前送性理大全例 刊板.”

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6年 1月 29(庚戌)日條.

“校書館以提調意 啓請朱子大全印出件數 上 書下進上五件 國用一百件.”

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8年 3月 7(丙午)日條.

“...上問于校書館 資治通鑑印出事 如何 四書五經印出進上件 今幾何 館對曰 朱子語類·大全·天文等書 卷數甚多 故通鑑件數 時未入啓 四書五經進上二十件內 大學·春秋·禮記 已畢印 論語·詩傳 今方印出 他書則刊張甚多 時方督刻矣.”

18) 柳鐸一, “『朱子書節要』註釋의 脈絡과 그 註釋書들: 外來文獻의 韓國的 受容 II,” 『書誌學研究』 第5·6合輯(서울: 書誌學會, 1990), 7.

19) 趙翼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浦渚集』, 韓國文集叢刊 第85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卷26. 序. ‘朱子書抄節分類序’條.

“... 朱子全書 行於東方甚罕 雖老師宿儒 鮮有得見之者 而此書刊行已廣 爲士者亦鮮不有之.”

공자의 말을 외우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건만, 끝내 이 학문에 힘쓰는 자가 있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단서를 열고 그 마음에 징험함이 있지 않는 까닭이다. 지금 이 書簡들 속의 말은 당시 師友들 사이에서 성현의 要訣을 講明하고 공부를 권장한 것이었으니, 저들과 같이 泛泛하게 論說한 것과는 다르고 어느 것이나 사람의 뜻을 감동시키며 사람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옛 聖人의 가르침에는 「詩」·「書」·「禮」·「樂」 등이 모두 내재하는 것이니 程子와 朱子가 칭송하여 기술하면서 이에 「論語」를 학문의 가장 절실한 것으로 삼은 뜻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²⁰⁾고 하여 「朱子書節要」의 편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浦渚 趙翼(1579~1655)도 “退溪先生이 朱子의 서찰들만을 뽑아 ‘節要’를 편찬하였다. 그 이유는 朱子의 글 가운데 가령 詩詞와 雜著 등 여러 작품들도 하나같이 정대한 道義에 입각해서 나온 것이지만, 義理를 논변하고 공부의 방법을 지시해 준 것으로는 서찰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마치 「詩經」과 「書經」을 산삭하고 「周易」을 찬술하며 「春秋」를 저작한 것은 모두가 孔子의 述作으로 이루어졌으나, 공자가 사람들을 가르친 微言들 가운데서 학자에게 절실한 것으로는 「論語」에서 문답한 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과도 같은 이유라 할 것이다.”²¹⁾고 하여 「朱子書節要」의 편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退溪가 「朱子書節要」를 편찬하고 이로부터 60여년이 지난 광해군 14년(1622)에 愚伏에 의해 「朱子大全」에서 <詞>·<賦>·<詩>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자신이 精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비로소 「朱文酌海」가 편찬되었다. 이에 대하여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은 “「朱文酌海」 16권 8책은 愚伏 鄭先生께서 選定한 것이다. 대체로 「朱子大全」의 전집에는 모든 것이 광범하게 수록되어 있어 없는 것이 없으므로 학자들이 그 일부를 엿보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退溪 李先生께서 <書>와 <疏>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精選하여 「朱子書節要」 20권 10책을 만드셨으니, 이는 실로 初學들에게 朱子書를 이해하는 데없이 좋은 지침서가 되었다. 그러나 다만 <封事>에 서부터 <碑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문장들을 하나도 選取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讀者들이 불만으로 여겨 왔다. ... 博學한 선비에게 진실로 「朱子大全」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정력이 부족하여 절략한 글을 보아야 할 경우에는 먼저 이 두 가지 서적을 아울러 보되 익숙하도록 반복해 읽고 그 뜻을 모두 관통하여, 그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규모를 바르게 한 뒤에 미루어서 모든 이치를 자세히 깨닫고 두루 통한다면 朱子의 중요한 뜻인 精深한 의리와 신묘한 運用을

20) 李滉 著, 退溪學研究院 編, 「退溪全書」, 서울: 退溪學研究院, 2003. 卷42. 序, 「朱子書節要序」條.

“夫人之爲學 必有所發端興起之處 乃可因是而進也 且天下之英才不爲不多 讀聖賢之書 誦夫子之說 不爲不勤 而卒無有用力於此學者 無他 未有以發其端而作其心也 今夫書札之言 其一時師友之間 講明旨訣 責勉工程 非同於泛論如彼 何莫非發人意而作人心也 昔聖人之教 詩書禮樂皆在 而程朱稱述 乃以論語爲最切於學問者 其意亦猶是也.”

21) 趙翼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浦渚集」, 卷26. 序, 「朱子書抄節分類序」條.

“退溪先生纂取朱子書札爲節要 蓋以朱子之文如詩詞雜著諸作 無非一出於道義之正也 然其論辨義理及指示用力之方 則莫切於書札也 如詩書之刪 易之贊 春秋之筆削 無非孔子之述作也 然其誨人之微言切於學者 則莫如論語問答之辭也.”

거의 알게 될 것이다.”²²⁾고 하였다.

『朱子大全』의 篇帙이 너무 많아 지식이 풍부한 학자들도 다 보기가 쉽지 않자 退溪가 書·疏만을 뽑아 10책의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여 初學들에게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書>·<疏>를 제외한 <封事>에서부터 <碑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를 選定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점을 학자들이 늘 아쉽게 여겼던 것이다. 이에 愚伏은 『朱子書節要』의 결점을 해결하고자 직접 『朱子大全』의 <書>·<疏>를 제외한 <封事>에서부터 <碑狀>에 이르기까지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절요서의 편찬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무엇보다 『朱文酌海』를 편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면서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愚伏의 이러한 생각은 『朱文酌海』를 편찬하기 훨씬 전인 선조 37년(1604)에 스승인 西厓로부터 『朱子書節要』를 전해 받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愚伏이 스승인 西厓로부터 받은 『朱子書節要』를 연구하는 중에, 이로부터 7년 뒤인 광해군 3년(1611)에 충청도 錦山에서 목관으로 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을 들자면 당시 政權의 實勢였던 大北의 영수 鄭仁弘의 무함으로 비롯된 ‘金直哉의 獄事’(1612)와 ‘沈愷의 事件’(1615)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으면서 정치에 뜻을 버리고 6년여 동안 愚伏山莊에 은둔하였는데 이것이 『朱文酌海』를 편찬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 愚伏은 朱子書를 비롯한 여러 經傳과 특히 禮書를 탐독하여 많은 성취가 있었으며, 그 결과 광해군 10년(1618)에 『思問錄』²³⁾을 저술하고 광해군 14년(1622)에 『朱文酌海』를 편찬하는 등 그의 대표적인 저술들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愚伏은 평소 “朱子の 글을 매우 좋아하여 항상 朱子の 글은 日星처럼 빛나고 河海처럼 광대하여 의리와 문장이 찬란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千古 이래로 일찍이 이런 글은 없었다.”²⁴⁾고 말할 정도로 朱子를 공경할 정도로 매우 심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朱文酌海』의 편찬은 평소 朱子書에 심취해 있던 愚伏이 스승인 西厓로부터 退溪의 『朱子書節要』를 전해 받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朱子書節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選本을 구상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朱子大全』에 대한 연구는 退溪로부터 시작되었으나 愚伏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朱文酌海』는 『朱子書節要』와 더불어 朱子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22) 宋浚吉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同春堂集』. 卷16. 題跋. ‘朱文酌海跋’條.

“右朱文酌海十六卷八冊 卽愚伏鄭先生所選定者也 蓋朱夫子大全集 如地負海涵 靡所不有 學者未易窺其涯涘 退溪李先生就其書疏中 爲節要十冊 誠初學之指南 無以尙之 獨其自封事至碑狀諸文字 咸不在選 讀者歎焉 … 博學之士 固自有大全集在焉 若其精力不長 未免節約之功者 先將兩書 兼玩并觀 熟複融貫 以開其路脈 正其規模 然後推以上之 曲暢旁通 則朱門旨訣 精義妙用 其庶幾乎.”

23) 朱子の 『易學啓蒙』, 退溪의 『啓蒙傳疑』, 黃幹의 『儀禮經傳通解續』 그리고 『大喪服圖』에 대한 내용이다. 易學과 禮學에 관하여 평소에 讀書할 때 의심스럽고 어렵게 생각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24) 宋浚吉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同春堂集』. 卷16. 題跋. ‘朱文酌海跋’條.

“… 先生平日酷好朱文 常以爲如日星焉河海焉 理義文章 燦然備具 千古以來 未嘗有此 ….”

3. 「朱文酌海」의 編成體制와 校勘

3.1 編成體制와 收錄方式

「朱文酌海」의 편성은 전체적으로 「朱子大全」의 체제를 따랐으나, 「朱子大全」의 권1~10의 <詞>·<賦>·<詩>와 권100의 <公移> 등에서는 1편도 選定하지 않았다.

<表 2> 「朱文酌海」와 「朱子大全」의 編成體制의 比較

「朱文酌海」				「朱子大全」
上	冊1	卷1	封事	卷11
	冊2	卷2	封事	卷12
		卷3	奏筭	卷13-14
	冊3	卷4	議狀	卷15
			奏狀	卷16-18
中	冊4	卷5	奏狀	卷19
			申請	卷20-21
	冊5	卷6	辭免	卷22-23
		卷7	書	卷24-46
	冊6	卷8	書	卷47-64
			續集 書	卷 1-7
			別集 書	卷 1-4
	冊7	卷9	雜著	卷65-74
	冊8	卷10	序	卷75-76
		卷11	記	卷77-80
下			社會事目	卷99
	冊9	卷12	跋	卷81-84
		卷13	銘	卷85
			箴	卷85
			贊	卷85
			表	卷86
			祭文	卷87
	冊10	卷14	碑	卷88-89
			墓表	卷90
			墓誌銘	卷91-94
	冊11	卷15	行狀	卷95-97
	冊12	卷16	行狀	卷98
			實記	
			年譜	
	同春堂 跋文 添入			

다만, 권99의 <公移>에 있던 <社會事目>은 「朱文酌海」 권11의 ‘建寧府崇安縣五夫社倉記’의 뒤로 옮겨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서간의 경우 「朱子書節要」의 편성체제에 따라 <續集>과 <別

集>의 서간을 <正集>의 서간의 뒤로 옮겨서 수록하고 있다.

愚伏이 『朱文酌海』를 편찬하면서 『朱子大全』의 내용을 선정해 올 때, 그 選定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기준은 오로지 愚伏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表 3> 『朱文酌海』의 類目別 選定 現況

區 分	類 目	『朱子大全』 篇數	『朱文酌海』 篇數	選 定 率 (%)
1	封 事	5	5	100.0
2	奏 劄	30	17	56.7
3	議 狀	6	5	83.3
4	奏 狀	67	18	12.8
5	申 請	55	5	9.0
6	辭 免	144	26	18.0
7	書	2365	117	0.5
8	雜 著	130	21	16.1
9	序	68	15	22.0
10	記	82	24	29.2
11	跋	285	36	12.6
12	銘·箴·贊·表	67	9	13.4
13	祭 文	42	7	16.6
14	碑	11	4	36.3
15	墓 表	12	5	41.7
16	墓誌銘	53	7	13.2
17	行 狀	13	5	38.5
18	實 記	1	1	100.0

그러나 同春堂의 『朱文酌海』 발문에 의하면 “大體에 관계되고 受用에 절실한 내용을 중심으로 選定하였으며, 『朱子書節要』와는 수레와 수레를 이끄는 輿衛의 관계가 되도록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였음”²⁵⁾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朱文酌海』 수록된 내용의 각 類目別 選定率을 통하여 愚伏의 관심과 編纂의 목적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25) 宋浚吉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同春堂集』, 卷16. 題跋. ‘朱文酌海跋’條.

“右朱文酌海十六卷八冊 卽愚伏鄭先生所選定者也 蓋朱夫子大全集 如地負海涵 靡所不有 學者未易窺其涯涘 退溪李先生就其書疏中 爲節要十冊 誠初學之指南 無以尙之 獨其自封事至碑狀諸文字 咸不在選 讀者歎焉 先生平日酷好朱文 常以爲如日星焉河海焉 理義文章 燦然備具 千古以來 未嘗有此 餘以文名家者 殆類俳矣 沈潛玩味 不翅如芻豢之悅口 至於疾病垂絕萬緣俱忘之際 語及此文 則心神如爽輒舉數三行 極論其歸趣而後已焉 先生之於此文 可謂得之於天矣 間嘗手自訂選 取其尤關於大體而切於受用者 編爲是表 其刪節之間 各有權衡 與李先生所選節要者 實相輿衛 其書疏一冊 所以補節要之見遺者也 博學之士 固自有大全集在焉 若其精力不長 未免節約之功者 先將兩書 兼玩并觀 熟複融貫 以開其路脈 正其規模 然後推以上之 曲暢旁通 則朱門旨訣 精義妙用 其庶幾矣乎 先生不曾自爲題識 蓋亦有微意焉 書行於世有年 或不知出於誰氏 茲敢不揆僭妄 識其顛末如右云.”

특히 <封事>·<奏筭>·<議狀> 등에서 比較的 높은 選定率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愚伏의 官僚로서의 政治哲學(經世論)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간은 『朱子書節要』에서 뽑지 않은 부분에서 중복이 되지 않게 선정하였으며, 그것은 <序>·<記>·<跋文>·<雜著> 등과 함께 선정된 편수가 그리 많지 않으나 朱子의 性理說과 哲學 및 學問傾向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朱子書의 수록방식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²⁶⁾

『朱子書節要』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8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 ① 원문을 그대로 둔 것
- ② 원문의 앞부분만 刪去한 것
- ③ 원문의 뒷부분만 刪去한 것
- ④ 원문의 앞·뒤는 그대로 두고 중간부분만 刪去한 것
- ⑤ 원문의 앞부분을 비롯하여 중간·중간 不緊한 부분을 刪去한 것
- ⑥ 원문의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중간과 끝부분을 刪去한 것
- ⑦ 원문의 앞부분과 중간부분, 그리고 끝부분의 투식적인 부분도 刪去한 것
- ⑧ 원문의 중간은 그대로 두고 앞·뒷부분을 刪去한 것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朱文酌海』는 『朱子書節要』에 이어서 편찬된 『朱子大全』의 選本 즉 節要書이다. 『朱文酌海』의 節要方式은 크게 保存, 選取, 刪去, 組合, 校正 등의 5가지 방법으로 선정하여 편집·수록하고 있다.

- ① 원문의 全篇을 수록하여 保存하는 방법
- ② 원문의 緊要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選取하는 방법
- ③ 원문의 투식적인 표현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刪去하는 방법
- ④ 원문의 여러 편의 문장을 하나의 題名 아래에 전체 또는 일부만을 모아 조합하는 방법
- ⑤ 원문의 誤字로 의심되거나 追記가 필요한 부분은 校正을 추가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朱文酌海』의 節要方式은 <封事>·<序文>·<記文> 등에서의 같이 全篇을 選定하여 收錄한 것도 많지만, 대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에 따라 편찬되었던 것이다.

26) ① 강진석, “退溪 朱子書節要 編輯의 方法的 特徵과 意義,” 『退溪學學報』 第113號(서울: 退溪學研究院, 2003), 51-94.
② 柳鐸一, “朱子書節要의 編纂·刊行과 그 後響,” 『退溪全書』(李滉 著, 退溪學研究院 編, 『退溪全書』. 서울: 退溪學研究院, 2003) 卷23. pp.viii~ix.
③ 류준필, “退溪 『朱子書節要』의 朱子文獻 編輯 方式,” 『退溪學研究』 第14輯(安東: 退溪學研究院, 2008), 95-121.

3.2 校勘

『朱子大全』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4차에 걸쳐서 간행된 바 있다.²⁷⁾ 중종 38년(1543)에 처음으로 慕齋 金安國本 『朱子大全』이 간행되자 교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沖齋 權櫟(1478~1548)은 金安國本을 교정하여 『朱子大全考疑』를 남기고 이어서 선조 6년(1573)에 眉庵 柳希春(1513~1577)은 『朱子大全』을 교정하면서 退溪의 『朱全說』과 『朱文說』 등²⁸⁾을 참고하여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²⁹⁾를 만들어 宣祖에게 올렸다.

한편, 愚伏은 眉庵의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의 校正을 『朱文酌海』에 부가시키고 있다.

<表 4> 『朱文酌海』에 附加된 註釋의 內容

番號	卷次	篇 名	註釋의 內容(初刊重印本)	備考
1	3	•垂拱奏簡二	•‘自當忻合無間而’·‘亦將’間에 ‘夷狄禽獸’를 追加	
2	3	•經筵留身簡子	•‘控疑當作輕’·‘唐本前馬乙’	頭註(2)
3	5	•條奏經界狀	•‘則疑副’	頭註
4	6	•辭免改官官觀狀	•‘癸巳’	
5	6	•辭免改官官觀狀三	•‘甲午’	
6	6	•辭免知南康軍狀	•‘戊戌’	
7	6	•自劾本州地震及患脚氣不能祇赴錫宴妨廢職務乞賜罷黜奏狀	•‘庚戌’	
8	6	•辭免知靜江府狀二	•‘癸丑’	
9	6	•乞追還待制職名奏狀三	•‘三月’	
10	6	•乞追還待制職名并自劾不合妄議永阜攢陵事奏狀五	•‘九月’	

27) 崔彩基는 刊行을 주도한 인물의 人名을 따서 朝鮮時代 刊本の 명칭을 金安國本(1543), 柳希春本(1575), 元斗杓本(1635), 洪啓禧本(1771)으로 命名하였다(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13), 23).

28) 『朱全說』은 『朱子全書論釋』을 지칭하는 것이며 『朱文說』은 『朱文論說』을 지칭하는 것이다(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13), 30-35).

29) 柳希春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眉巖集』, 韓國文集叢刊 第34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卷3. 雜著.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條.

一 文集語類 今據數本 又文語散見他書者 參互考訂 擇其文理意義之長者而從之.

一 文集語類中重出者 標題云已見某卷 此重出.

一 語類中辭語雖涉甲類 而主意當歸乙類者 今標題云當歸某類某門.

一 避諱代書之字 今依文公韓文考異例 從實改正 其中亦有不敢直改 而只標題云某當作某 蓋慎字乃孝宗之諱 而在高宗時所作 直用慎字 其在孝宗以後所作 以謹代之 光宗之惇 寧宗之擴 亦皆倣此 若引古書用古語 則存本文而不避諱.

一 書肆板本從省之字 如以鄱陽爲番易 使君爲史君 竊謂爲切謂 遯遁爲解後類 皆從完改正.

一 疊語寫法 如幸甚幸甚 華人往往以幸甚甚寫之 依文公手跡疊語寫法 竝改正.

一 未穩之字 無他考證 不敢改正 只標題云某恐當作某 疑當作某 又求其字而不得 則只云 … 萬曆三年六月日 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經筵 成均館 春秋館事臣柳希春 校進.

番號	卷次	篇 名	註釋의 內容(初刊重印本)	備考
11	6	• 與宰執劄子	• ‘諸執政無然猶至吉也一節’	
12	6	• 與江東陳帥書	• ‘取疑就’	頭註
13	6	• 答汪尚書	• ‘甲申十月’	
14	7	• 答劉子澄	• ‘壬辰’	
15	7	• 答陸子靜	• ‘丁未五月二日’	
16	7	• 答黃商伯	• ‘靜當作情’	頭註
17	8	• 答王子合	• ‘番恐當作飢’	頭註
18	8	• 答黃直卿	• ‘已下出續集’·‘庚子’	
19	8	• 與田侍郎(子貞)	• ‘貞’을 ‘眞’으로	
20	8	• 呂子約(祖儉)	• ‘(祖儉)’ 刪고 ‘已下出別集’	
21	8	• 程允夫	• ‘口疑是妄字’	頭註
22	8	• 劉共甫	• ‘七當作一’	頭註
23	9	• 讀兩陳鍊議遺墨	• ‘偏疑當作編’	頭註
24	9	• 諭諸生	• ‘退溪曰爲當作焉’	頭註
25	9	• 玉山講義	• ‘甲寅十一月爲邑宰司馬遷講說道要’	
26	10	• 送陳宗之序	• ‘退溪曰然當作知’	頭註
27	10	• 雲龕李公文集序	• ‘退溪曰言行錄敏作肅’	頭註
28	10	• 楚辭後語目錄序	• ‘謹當作愼’	頭註
29	11	• 社會事目(勅命并跋語附)	• ‘(勅命并跋語附)’ 刪고 ‘今移附’	
30	11	• 黃州學二程先生祠記	• ‘祀疑祠’	頭註
31	12	• 跋王信臣行實	• ‘記疑紀’	頭註
32	13	• 祭籍溪胡先生文	• ‘問疑作聞’	頭註
33	14	• 直秘閣贈朝議大夫範公神道碑	• ‘庸當作傭’·‘遂下脫於字’·‘八下疑脫日字’	頭註(3)
34	14	• 程君正思墓表	• ‘下之當乙’·‘問恐作憫’	頭註(2)
35	14	• 聘士劉公先生墓表	• ‘妮當作臺’	頭註
36	14	• 知南康軍石君墓誌銘	• ‘某當作啓’	頭註
37	14	• 從事郎監潭州南嶽廟劉君墓誌銘	• ‘者字疑誤’	頭註
38	15	•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復大全唐本作傷’·‘大全唐本前下有請字’· ‘洪當作弘’·‘燾當作椿’	頭註(4)

欄外頭註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愚伏은 당시 이미 간행되어 유행되던 唐本の 『晦菴集』을 비롯하여 중종 38년(1543)과 선조 8년(1575)에 간행된 2종의 朝鮮刊本の 『朱子大全』 등 적어도 3종 이상의 판본을 참고·비교하면서 校勘을 실시하고 註釋을 附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 疑 ◎◎◎

<‘○○○’는 ‘◎◎◎’인 듯하다.>의 경우이다.

□ 則疑副: ‘則’은 ‘副’인 듯하다.

『朱文酌海』, 上, p.405. <條奏經界狀>.

□ 取疑就: ‘取’는 ‘就’인 듯하다.

『朱文酌海』, 中, p.94. <與江東陳帥>.

□ 祀疑詞: ‘祀’는 ‘詞’인 듯하다.

『朱文酌海』, 中, p.583. <黃州學二程先生祠記>.

- ☐ 記疑紀: ‘記’는 ‘紀’인 듯하다.
『朱文酌海』, 下. p.71. <跋王信臣行實>.

(2) ○○○ 疑作 ○○○○

<‘○○○’는 ‘○○○○’가 되어야 할 듯하다.>로 의심 가는 경우이다.

- ☐ 問疑作聞: ‘問’은 ‘聞’이 되어야 할 듯하다.
『朱文酌海』, 下. p.103. <祭籍溪胡先生文>

(3) ○○○ 當作 ○○○○

<‘○○○’는 마땅히 ‘○○○○’라야 한다.>의 경우이다.

- ☐ 靜當作情: ‘靜’은 마땅히 ‘情’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中. p.172. <答黃商伯>
☐ 七當作一: ‘七’은 마땅히 ‘一’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中. p.277. <劉共甫>
☐ 謹當作愼: ‘謹’은 마땅히 ‘愼’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中. p.480. <楚辭後語目錄序>
☐ 媿當作臺: ‘媿’는 마땅히 ‘臺’라야 한다.
『朱文酌海』, 下. p.221. <聘士劉公先生墓表>
☐ 某當作𡵓: ‘某’는 마땅히 ‘𡵓’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下. p.230. <知南康軍石君墓誌銘>
☐ 洪當作弘: ‘洪’은 마땅히 ‘弘’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下. p.374.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燾當作椿: ‘燾’는 마땅히 ‘椿’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下. p.375.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庸當作傭: ‘庸’은 마땅히 ‘傭’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下. p.171. <直秘閣贈朝議大夫範公神道碑>

(4) ○○○ 疑當作 ○○○○

<‘○○○’는 의심은 가지만 ‘○○○○’가 되어야 마땅하다.>의 경우이다.

- ☐ 控疑當作𡵓: ‘控’은 의심은 가지만 ‘𡵓’이 되어야 마땅하다.
『朱文酌海』, 上. p.274. <經筵留身面陳四事劄子>
☐ 偏疑當作編: ‘偏’은 의심은 가지만 ‘編’이 되어야 마땅하다.
『朱文酌海』, 中. p.386. <讀兩陳諫議遺墨>

(5) ○○○ 恐當作 ○○○○

<‘○○○’는 아마도 마땅히 ‘○○○○’라야 한다.>의 경우이다.

- ☐ 番恐當作𡵓: ‘番’은 아마도 마땅히 ‘𡵓’이라야 한다.
『朱文酌海』, 中. p.196. <答王子合>

(6) ○○○ 恐作 ○○○○

<‘○○○’는 아마도 ‘○○○○’이 되어야 할 듯하다.>의 경우이다.

□ 間恐作憫: ‘間’은 아마도 ‘憫’이 되어야 할 듯하다.

「朱文酌海」, 下. p.208. <程君正思墓表>

(7) ○○○ 疑誤

<‘○○○’는 誤字로 의심된다.>의 경우이다.

□ 者字疑誤: ‘者’는 誤字로 의심된다.

「朱文酌海」, 下. p.250. <從事郎監潭州南嶽廟劉君墓誌銘>

(8) ○○○ 當乙

<‘○○○’는 마땅히 倒置되어야 한다.>의 경우이다.

□ 下之當乙: ‘下之’는 마땅히 ‘之下’로 倒置되어야 한다.

「朱文酌海」, 下. p.206. <程君正思墓表>

(9) 退溪曰

<退溪의 言論을 引用>한 경우이다.

□ 退溪曰 爲當作焉: “退溪께서는 ‘爲’는 마땅히 ‘焉’이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朱文酌海」, 中. p.404. <諭諸生>

□ 退溪曰 然當作知: “退溪께서는 ‘然’은 마땅히 ‘知’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朱文酌海」, 中. p.428. <送陳宗之書>

□ 退溪曰 言行錄 敏作肅: “退溪께서는 <言行錄>에서 ‘敏’은 ‘肅’이다.”고 하셨습니다.

「朱文酌海」, 中. p.474. <雲龕李公文集序>

(10) 其他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口疑是忘字: ‘口’자는 ‘忘’자가 아닌가 한다.

「朱文酌海」, 中. p.275. <程允夫>

□ 水下脫於字: ‘水’자 아래에 ‘於’자가 탈락되었다.

「朱文酌海」, 下. p.175. <直秘閣贈朝議大夫範公神道碑>

□ 八下疑脫日字: ‘八’자 아래에 ‘日’자가 탈락되었다.

「朱文酌海」, 下. p.176. <直秘閣贈朝議大夫範公神道碑>

□ 復大全唐本作傷: 唐本 「朱子大全」에는 ‘復’자가 ‘傷’자로 되어 있다.

「朱文酌海」, 下. p.342.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大全唐本前下有請字: 唐本 「朱子大全」에는 ‘前’자 아래에 ‘請’자가 있다.

「朱文酌海」, 下. p.370.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唐本前馬乙: 唐本 「朱子大全」에는 ‘前馬’가 ‘馬前’으로 도치되어 있다.

「朱文酌海」, 上. p.274. <經筵留身面陳四事劄子>

『朱文酌海』의 頭註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愚伏은 당시 이미 간본으로 유행되던 唐本『晦菴集』³⁰⁾을 비롯하여 朝鮮에서 刊行된 金安國本(1543)과 柳希春本(1575)의 2종의 『朱子大全』의 刊本을 참고하는 등 적어도 3종 이상의 판본을 비교하면서 校勘을 실시하고 註釋을 附加하였음을 알 수 있다.

愚伏이 『朱文酌海』의 頭註에 부가한 註釋의 내용은

- ① 年度를 밝힌 것
- ② 原文에 빠진 부분을 더 넣은 것
- ③ 編次の 구성을 『晦菴集』과 달리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힌 것
- ④ 誤字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밝힌 것

등이다.

아울러 愚伏은 文章의 誤字와 관련해서도

- ① 자신 참고한 다른 판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
- ② 退溪가 誤字로 의심하여 지적한 경우
- ③ 자신의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대하여 頭註의 형태를 취하여 校正記를 남기고 있다.³¹⁾

4. 『朱文酌海』의 刊行과 版本

愚伏의 『朱文酌海』는 그의 스승인 西厓로부터 『朱子書節要』를 전해 받아 읽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편찬이 구상되어 光海君朝의 어지러운 국정을 피하여 慶尙道 尙州의 愚伏山莊에 은둔하며 학문에 정진하던 광해군 14년(1622)에 비로소 그 編次가 완료된 결과물이다.

광해군 14년(1622)에 編次가 완료된 『朱文酌海』가 어느 시기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朱文酌海』의 刊行과 관련된 時期의 추정은 同春堂의 <朱文酌海跋文>과 後孫인 瓶庵 鄭喆愚의 <朱文酌海識文>의 기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진부하나마 이들 두 문장의 번역을 통하여 살피고자 한다.

30) 이는 ‘復大全唐本作傷’, ‘大全唐本前下有請字’, ‘唐本前馬乙’ 등의 註釋을 통해서 볼 때 唐本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 이봉규, “愚伏 鄭經世의 學問活動과 『朱文酌海』의 性格,” 『朱文酌海』 卷上 (서울: 서울대학교 奎章閣, 2005), 14-15.

우선 同春堂의 <朱文酌海跋文>에서는

「朱文酌海」16권 8책은 愚伏 鄭先生께서 選定한 것이다. 대체로 朱夫子의 「[朱子]大全(集)」은 모든 것이 광범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學者들이 그 한계를 엿보기 쉽지 않다. 退溪李先生께서 「朱子大全」의 <書>와 <疏> 중에서 選取하여 「[朱子書]節要」[20권] 10책을 만드셨으니, 진실로 初學者들을 指南하는데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封事>부터 <碑>와 <狀>에 이르기까지 모든 文字를 전혀 뽑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學者들이 아쉬워해마지 않았다.

[愚伏]先生께서는 평소 朱子書를 매우 좋아하여 항상 “朱子書는 해와 별처럼 빛나고 강과 바다처럼 廣大하며 義理와 文章이 찬란히 구비되어 있다. 千古이래로 일찍이 이러한 글은 없었으니, 여타의 문장으로 이름난 이들도 거의 다른 이들의 耳目을 즐겁게 하는 배우와 같다.”고 하시면서, 깊이 연구하기를 입이 肉類를 좋아하듯이 하셨다. 심지어 疾病으로 숨이 거의 끊어져 세상만사를 모두 잊은 때에도 이야기가 朱子書에 미치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몇 줄의 글을 들어 그 뜻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야 그만두셨으니, 선생께서 朱子書의 글을 좋아하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일찍이 여가가 있을 때에 더욱 大體에 관계되고 受用에 절실한 문장들을 손수 訂選하여 이 「朱文酌海」를 편찬하셨는데, 문장을 刪節할 때에도 각각 그 基準이 있었으니, 이 「朱文酌海」는 실로李先生께서 節要하신 「[朱子書]節要」와는 수레와 수레를 모는 衛士인 輿衛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朱文酌海」한 질에 수록되어 있는 <書>와 <疏> 등의 문장은 「[朱子書]節要」에서 遺漏된 것을 보완한 것이다.

博學한 선비에게는 진실로 「[朱子]大全」이 있으나, 精力이 부족하여 節約한 문장을 보아야 한다면 먼저 이 두 서적을 아울러 보되, 익숙하도록 반복해 읽고 뜻을 모두 관통하여 그 문장의 脈絡을 깨닫고 그 규모를 바르게 한 뒤에 미루어 위로 올라가서 모든 이치를 자세히 깨닫고 두루 통한다면 朱子 門中の 중요한 旨訣인 精深한 의리와 신묘한 運用을 거의 알 수 있게 될 것인!

[愚伏]先生께서 이 「朱文酌海」에 스스로 題識를 붙이지 않은 데에는 아마도 은미한 뜻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 「朱文酌海」가 세상에 流行된지 여러 해가 지났어도, 더러는 누구에 의하여 저작된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에 감히 참람함을 무릅쓰고 그 顛末을 이상과 같이 기록하는 바이다. 云云.³²⁾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後孫인 瓶庵 鄭喆愚의 <朱文酌海識文>에서는,

옛적에 나의 선조 文莊(愚伏)公께서는 陶山(退溪)先生의 再傳弟子로서 그 嫡統을 이어받아 위로 考亭(朱子)의 道統을 繼述하시어, 여러 經傳에 해박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특히 朱子의 朱子書에 가장 深趣하셨다.

32) 鄭經世 著, 「朱文酌海」, 木版本. [大邱]: [嶺營], [孝宗 4(1653)]. 卷16. <跋文(宋浚吉撰)>條.

“右朱文酌海十六卷八冊 卽愚伏鄭先生所選定者也 蓋朱夫子大全集 如地負海涵 靡所不有 學者未易窺其涯涘 退溪李先生就其書疏中 爲節要十冊 誠初學之指南 無以尙之 獨其自封事至碑狀諸文字 咸不在選 讀者歎焉 先生平日酷好朱文 常以爲如日星焉河海焉 理義文章 燦然備具 千古以來 未嘗有此 餘以文名家者 殆類俳矣 沈潛玩味 不翅如芻豢之悅口 至於疾病垂絕萬緣俱忘之際 語及此文 則心神如爽輒舉數三行 極論其歸趣而後已焉 先生之於此文 可謂得之於天矣 間嘗手自訂選 取其尤關於大體而切於受用者 編爲是帙 其刪節之間 各有權衡 與李先生所選節要者 實相輿衛 其書疏一冊 所以補節要之見遺者也 博學之士 固自有大全集在焉 若其精力不長 未免節約之功者 先將兩書 兼玩并觀 熟複融貫 以開其路脈 正其規模 然後推以上之 曲暢旁通 則朱門旨訣 精義妙用 其庶幾矣乎 先生不曾自爲題識 蓋亦有微意焉 書行於世有年 或不知出於誰氏 茲敢不揆僭妄 識其顛末如右云.”

天啓 壬戌(1622, 광해군 14)年에 『朱子』大全」중 <封事>·<序>·<記>·<雜著> 등 여러 篇의 文章을 抄取하고 16권 8책으로 成書하여 그 題名을 『朱文酌海』라 하였는데, 이는 陶山先生의 『朱子書節要』의 趣旨를 충족시킬 수 있어 서로 表裏가 되고 수레와 수레를 모는 衛士인 輿衛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미 先賢들의 定論이었다.

그 후 戊子(1648, 인조 26)年에 參判 李舅公께서 嶺南觀察營에서 『朱文酌海』를 刊行하여 頒布 하셨으며, 또한 이어서 癸巳(1653, 효종 4)年에 同春 宋文正(浚吉)公께서 발문을 붙여 印出한 것이 오늘날까지 유통되고 있다.

正祖大王께서는 丙辰(1796, 정조 20)年에 친히 祭文을 製述하여 『朱文酌海』를 보니 卿(愚伏)의 존재를 알겠으며, 退溪를 私淑하고 朱子에 忠誠한 뜻도 알겠도다!』고 하셨으니, 임금님의 稱頌이 해와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本院(愚山書院)에서만 板本으로 이러한 歷代의 사실을 전하지 못함을 恨으로 여기다가 今(1847, 헌종 13)年 3월에 從兄 [鄭]顯愚 氏가 文中에다 大同團結로 板刻하여 陶山에 소장된 『朱子書節要』와 같이 길이 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였으니, 이는 우리 先祖 [文莊]의 아름다운 恩惠가 後學들의 功力으로 무궁히 이어져 나가도록 하자는 뜻이었던 것이다. 刊役을 끝내고 이러한 사실의 顛末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 참담함을 무릅쓰고 이상과 같이 기록하는 바이다. 云云.

丁未(1847, 憲宗 13)年 3월 열셋새에 후손 進士 [鄭]喆愚는 손을 씻고 삼가 쓰는 바이다.³³⁾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술된 愚伏의 사위인 同春堂의 <跋文>과 후손 瓶庵의 <識文>을 종합하여 『朱文酌海』의 編纂과 刊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5> 『朱文酌海』의 <跋文>과 <識文>의 內容 比較

項 目	『朱文酌海』<跋文>	『朱文酌海』<識文>	備 考
書 名	• 朱文酌海	• 朱文酌海	
著 者	• 愚伏先生選定	• 我先祖文莊公抄取 • 陶山再傳之嫡 上述考亭之緒 • 得卿所存 淑諸退陶 忠於紫陽(正祖)	
著作年代	-	• 壬戌(光海14, 1622)抄取大全	
卷 冊 數	• 16卷8冊	• 16卷8冊	
選定基準	• 手自訂選 • 關於大體而切於受用者	• 壬戌(光海14, 1622)抄取大全中 封事序記雜著諸文	
刪節基準	• 各有權衡	-	
題 識	• 先生不曾自爲題識 蓋亦有微意焉	-	
底 本	• 朱夫子大全集	• 大全	

33) 鄭經世 著, 『朱文酌海』, 木版本, [尙州]: [愚山書院], [憲宗 13(1847)]. 卷16. <識文(鄭喆愚撰)>條.

“昔我先祖文莊公 以陶山再傳之嫡 上述考亭之緒 於書無不博極 最渙於子朱子書與 在天啓壬戌 抄取大全中 封事序記雜著諸文 編成十六卷八冊 名之曰朱文酌海 蓋以足陶山節要之意也 相表裏輿衛 已有先賢定論 而其後戊子 參判李舅公 在嶺營刊布 又於癸巳 同春宋文正公 題跋辭印行逮至 正考丙辰 親製脩文曰 觀於酌海 得卿所存 淑諸退陶 忠於紫陽 宸章宸褒 炳如日星 而獨本院板本 歷世齎恨 今年春三 從兄顯愚氏 諗于諸宗 僉某大同 鉅梓而壽 其傳有如陶山之藏節要 吾先祖嘉惠 後學之功 將垂之無窮矣 役既卒不可無顛末 故僭識如右云 歲丁未秋七月既望 後孫進士[鄭]喆愚 盥手謹書.”

項 目	「朱文酌海」〈跋文〉	「朱文酌海」〈識文〉	備 考
朱 子 書	• 先生平日酷好朱文	• 最淡於子朱子書	
評 價	• 李先生所選節要者 實相與衡 • 補節要之見遺者	• 以足陶山節要之意也 相表裏與衡 已有先賢定論	
刊 行	-	• 戊子(仁祖26, 1648)參判李公舅 在嶺營刊布 • 癸巳(孝宗04, 1653)同春宋文正公 題跋辭印行 • 今(憲宗13, 1847)年春三 鋟梓而壽	
刊行動機		• 獨本院板本 歷世齎恨	
刊行目的		• 先祖嘉惠後學之功 將垂之無窮	
跋 文	• 不知出於誰氏 • 癸巳(孝宗04, 1653)宋浚吉撰 • 昭陽大荒落(癸巳, 孝宗04, 1653) 門人恩津宋浚吉敬書	• 癸巳(孝宗04, 1653)同春宋文正公 題跋辭	
祭 文		• 丙辰(正祖20, 1796)親製侑文	
識 文	-	• 不可無顛末 • 丁未(憲宗13, 1847)後孫進士 [鄭]喆愚 盥手謹書	

「朱文酌海」는 일찍이 광해군 14년(1622)에 愚伏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나 愚伏 스스로 序文이나 跋文을 붙이지 않아 著作者가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은 채 筆寫本으로 유통되었던 듯하다. 그런 뒤에 인조 26년(1648)에 愚伏의 門人인 參判 李舅(1605~1664)에 의하여 嶺南觀察營에서 16卷 8冊으로 初刊되었을 때도 역시 序文이나 跋文이 붙지 않았다.

이와 같이 「朱文酌海」가 누구의 저술인지도 모른 채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愚伏의 사위 同春堂이 효종 4년(1653)에 <跋文>³⁴⁾만을 더 새겨 붙여 重印하면서 비로소 「朱文酌海」의 著作者가 누구인지 알려지게 되었던 듯하다. 「朱文酌海」는 효종 4년(1653)에 同春堂의 <跋文>만을 더 새겨 붙여 重印된 이후로 현종·숙종·영조·경종·정조·순조 등의 朝代를 지나 현종 13년(1847) 이르기 이전까지는 同春堂의 <跋文>이 붙은 板本이 여러 차례 印出되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사정이 기술되어 있는 문헌은 없다.

愚伏의 「朱文酌海」는 현종 13년(1847)에 이르러 그의 고향 상주에 있는 愚山書院에서 “丁未(1847, 憲宗 13)仲夏愚山新刊”의 刊記³⁵⁾가 수록된 重刊이 새로이 출현되면서 다시금 후학들의 寶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34) 宋浚吉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同春堂集」, 卷16. 題跋. 「朱文酌海跋」條.

“右朱文酌海十六卷八冊 卽愚伏鄭先生所選定者也 … 先生不曾自爲題識 蓋亦有微意焉 書行於世有年 或不知出於誰氏 茲敢不揆僭妄 識其顛末如右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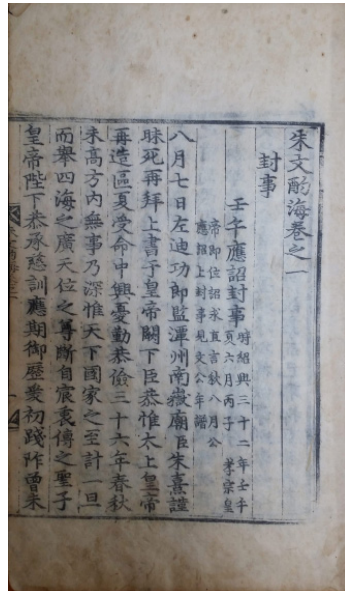
35) 鄭經世 著, 朱文酌海. 木版本. [尙州]: [愚山書院], [憲宗 13(1847)].

16卷8冊: 四周雙邊, 20.2×16.5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2.0×2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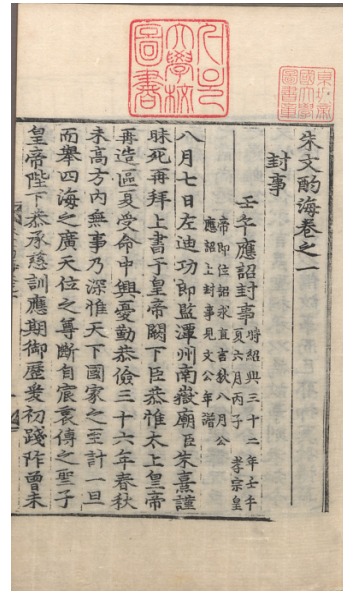
跋: 昭陽大荒落(癸巳, 1653)五月日 門人恩津宋浚吉(1606~1672)敬書.

跋: 歲丁未(1847)…[鄭]喆愚 盥手謹書

刊記: 丁未(1847)仲夏愚山新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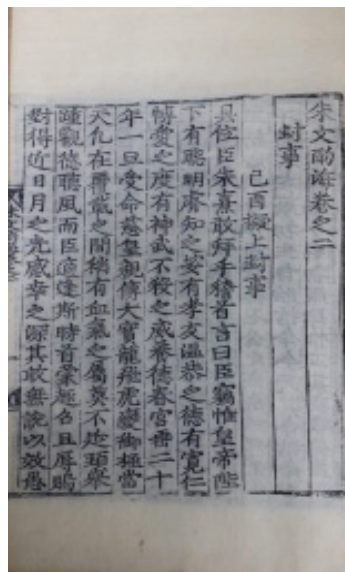


初刊本(仁祖 26, 1648) 高麗大學校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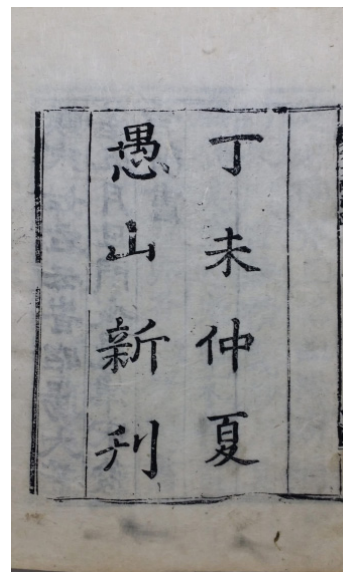


初刊重印本(孝宗 4, 1653) 奎章閣 所藏

<寫眞 1> 「朱文酌海」의 初刊本³⁶⁾



重刊本(憲宗 13, 1847)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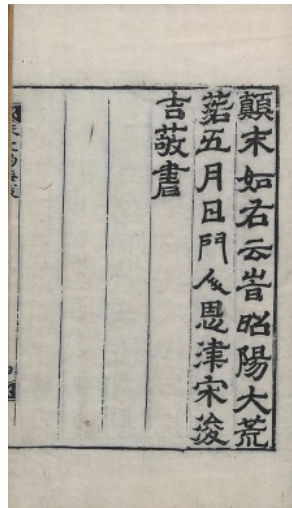


重刊本(憲宗 13, 1847) 刊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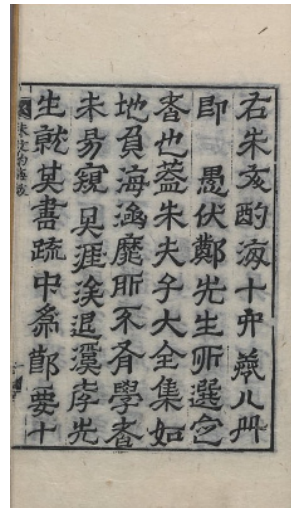
<寫眞 2> 「朱文酌海」의 重刊本

36) 「朱文酌海」의 板本과 관련된 資料는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과 國立中央圖書館 및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提供한 寫眞資料에 의한 것이다. 資料提供에 協助해주신 奎章閣韓國學研究院의 權在哲 司書와 國立中央圖書館의 李惠恩 司書 및 高麗大學校 漢籍室의 구자훈 司書께 感謝드린다.

이러한 그간의 사정은 헌종 13년(1847)에 간행된 「朱文酌海」 권16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瓶庵 鄭喆愚의 <識文>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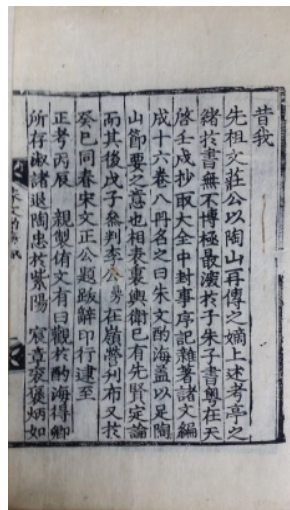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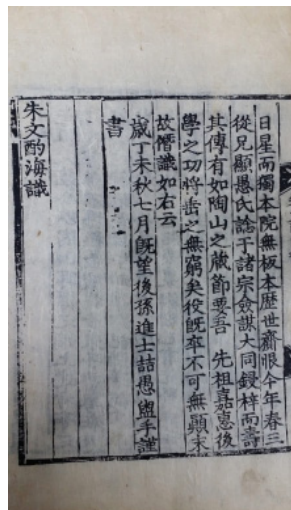


同春堂 宋浚吉의
「朱文酌海」跋文(末面)



同春堂 宋浚吉의
「朱文酌海」跋文(第1面)

<寫眞 3> 「朱文酌海」의 <跋文>



瓶庵 鄭喆愚의 「朱文酌海」<識文>(全文)³⁷⁾

<寫眞 4> 「朱文酌海」의 <識文>

37) 鄭經世 著, 「朱文酌海」, 木版本, [尙州]: [愚山書院], [憲宗 13(1847)]. 卷16. <識文(鄭喆愚撰)>條.

한편, 인조 26년(1648)에 參判 李冕에 의하여 嶺南觀察營에서 간행³⁸⁾된 初刊本과 효종 4년(1653)에 同春堂의 <跋文>을 붙여 重印한 初刊重印本 및 憲宗 13년(1847)에 尙州의 愚山書院에서 新刊된 重刊本 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6> 「朱文酌海」의 初刊本과 初刊重印本 및 重刊本の 特徵 比較

項 目	「朱文酌海」初刊本	「朱文酌海」初刊重印本	「朱文酌海」重刊本
著作年代	• 光海君 14(1622)	• 光海君 14(1622)	• 光海君 14(1622)
書 名	• 朱文酌海	• 朱文酌海	• 朱文酌海
著 者	• 愚伏 鄭經世	• 愚伏 鄭經世	• 愚伏 鄭經世
跋文撰者	-	• 同春堂 宋浚吉	• 同春堂 宋浚吉
識文撰者	-	-	• 瓶庵 鄭喆愚
板 本	• 木板本(初刊本)	• 木板本(初刊重印本)	• 木板本(重刊本)
刊 行 地	• [大邱]	• [大邱?]	• [尙州]
刊 行 處	• 嶺營	• [嶺營?]	• 愚山[書院]
助 力 者	• 參判 李冕	• 同春堂 宋浚吉	• 瓶庵 鄭喆愚
刊行年代	• 仁祖 26(1648)	• 孝宗 4(1653)	• 憲宗 13(1847)
卷 冊 數	• 16卷 8冊	• 16卷 8冊	• 16卷 8冊
本文邊欄	• 四周雙邊	• 四周雙邊	• 四周雙邊
跋文邊欄	-	• 四周單邊	• 四周單邊
識文邊欄	-	-	• 四周雙邊
界 線	• 有界	• 有界	• 有界
本文行字	• 10行18字	• 10行18字	• 10行18字
本 文 註	• 註雙行	• 註雙行	• 註雙行
欄 外 註	• 有欄外註	• 有欄外註	• 無欄外註(本文註移置)
跋文行字	-	• 6行10字	• 6行10字
識文行字	-	-	• 10行18字
板 口	• 白口	• 白口	• 白口
魚 尾	•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昔我先祖文莊公 以陶山再傳之嫡 上述考亭之緒 於書無不博極 最渙於子朱子書 奧 在天啓壬戌 抄取大全中封事序記雜著諸文 編成十六卷八冊 名之曰朱文酌海 蓋以足陶山節要之意也 相表裏輿衡 已有先賢定論 而其後戊子 參判李公冕 在嶺營刊布 又於癸巳 同春宋文正公 題跋辭印行逮至 正考丙辰 親製侑文曰 觀於酌海 得卿所存 淑諸退陶 忠於紫陽 宸章褒褒 炳如日星 而獨本院板本 歷世齟恨 今年春三 從兄顯愚氏 諡于諸宗 僉某大同 鉅梓而壽 其傳有如陶山之藏節要 吾先祖嘉惠 後學之功 將垂之無窮矣 役既卒不可無顛末 故僭識如右云 歲丁未秋七月既望 後孫進士[鄭]喆愚 盥手謹書。”

- 38) 愚伏은 인조 6년(1628)에 登極別試의 殿試讀卷官으로 참가하여 李冕 등 14인을 選拔한 바 있다[仁祖 6年 9月 20(丁丑)日: 設登極別試 取李冕等十四人]. 이때에 선발된 李冕은 인조 26년(1648) 2월 14일에 慶尙監司에 제수되어서[仁祖 26年 2月 14(己卯)日: 李冕爲慶尙監司] 인조 27년(1649) 4월까지 慶尙監司를 역임하다가[仁祖 27年 4月 1(己丑)日: … 慶尙監司李冕馳啓曰 …] 동년(1649) 5월에 孝宗이 즉위하면서 內職인 兵曹參判으로 이임되었다[孝宗 卽位年 12月 13(丁酉)日: … 兵曹參判李冕曰 …]. 따라서 「朱文酌海」의 初刊은 仁祖 26년(1648) 2월 14일 이후의 일로 推定된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朱文酌海』의 初刊本과 初刊重印本 및 重刊本에는 <跋文>과 <識文>의 撰者, 板本, 刊行地, 刊行處(者), 刊行의 助力者, 刊行年度, <跋文>의 邊欄, 欄外註文, <跋文>의 行字數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初刊本과 初刊重印本 및 重刊本 등의 板本을 鑑定할 수 있는 특징은 校勘記를 欄外註文으로 처리한 有無에 있다.

愚伏은 『朱文酌海』를 저술하면서 당시 이미 간행되어 유행되던 唐本의 『晦菴集』을 비롯하여 중종 38년(1543)과 선조 8년(1575)에 간행된 朝鮮刊本 『朱子大全』 등의 판본을 참고·비교하여, ‘疑’(4)·‘疑作’(1)·‘當作’(8)·‘疑當作’(2)·‘恐當作’(1)·‘恐作’(1)·‘疑誤’(1)·‘當乙’(1)·‘退溪曰’(3)·‘其他’(6) 등 도합 10종 28건의 校勘記를 欄外註文으로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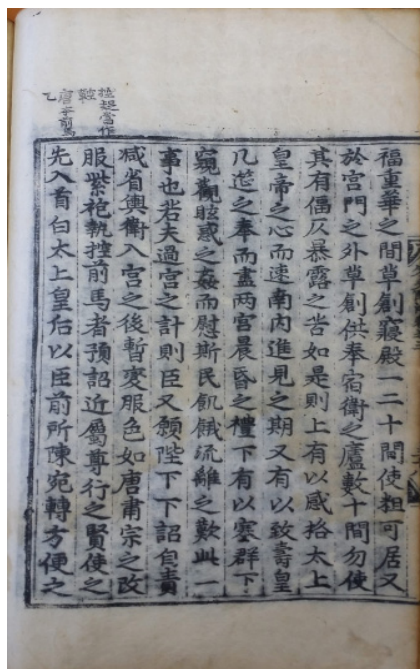
<表 7> 「朱文酌海」 初刊本の 頭註와 重刊本에서의 受容

番號	卷次	篇 名	初刊本の 頭註	重刊本の 受容	備考
1	3	• 經筵留身筭子	• ‘控疑當作輕’	• 同初刊本文	• 不受容
2	3	• 經筵留身筭子	• ‘唐本前馬乙’	• 本文 ‘馬前’으로 修正	• 受 容
3	5	• 條奏經界狀	• ‘則疑副’	• 同初刊本文	• 不受容
4	6	• 與江東陳帥書	• ‘取疑就’	• 同初刊本文	• 不受容
5	7	• 答黃商伯	• ‘靜當作情’	• 同初刊本文	• 不受容
6	8	• 答王子合	• ‘番恐當作飢’	• 同初刊本文	• 不受容
7	8	• 程允夫	• ‘口疑是妄字’	• 同初刊本文	• 不受容
8	8	• 劉共甫	• ‘七當作一’	• 本文 ‘一’로 修正	• 受 容
9	9	• 讀兩陳鍊議遺墨	• ‘偏疑當作偏’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0	9	• 論諸生	• ‘退溪曰爲當作焉’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1	10	• 送陳宗之序	• ‘退溪曰然當作知’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2	10	• 雲龕李公文集序	• ‘退溪曰言行錄敏作肅’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3	10	• 楚辭後語目錄序	• ‘謹當作愼’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4	11	• 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	• ‘祀疑祠’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5	12	• 跋王信臣行實	• ‘記疑紀’	• 本文 ‘紀’로 修正	• 受 容
16	13	• 祭籍溪胡先生文	• ‘問疑作聞’	• 本文 ‘聞’으로 修正	• 受 容
17	14	• 直秘閣贈朝議大夫範公神道碑	• ‘庸當作備’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8	14	• 直秘閣贈朝議大夫範公神道碑	• ‘遂下脫於字’	• 同初刊本文	• 不受容
19	14	• 直秘閣贈朝議大夫範公神道碑	• ‘八下疑脫日字’	• 同初刊本文	• 不受容
20	14	• 程君正思墓表	• ‘下之當乙’	• 本文 ‘之下’로 修正	• 受 容
21	14	• 程君正思墓表	• ‘問恐作憫’	• 本文에서 ‘問’으로	-
22	14	• 聘士劉公先生墓表	• ‘妮當作臺’	• 同初刊本文	• 不受容
23	14	• 知南康軍石君墓誌銘	• ‘某當作落’	• 同初刊本文	• 不受容
24	14	• 從事郎監潭州南嶽廟劉君墓誌銘	• ‘者字疑誤’	• 同初刊本文	• 不受容
25	15	•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復大全唐本作傷’	• 本文 ‘傷’으로 修正	• 受 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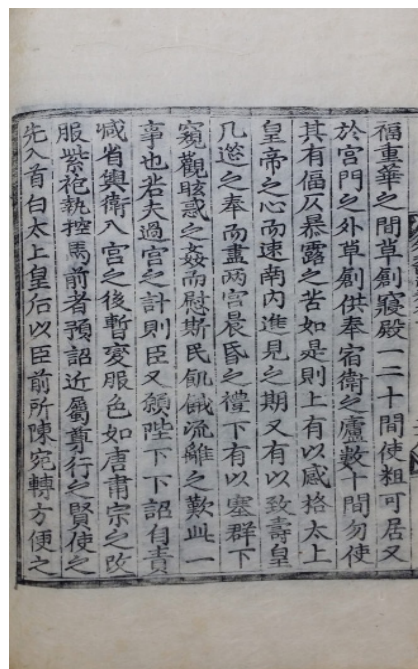
番號	卷次	篇 名	初刊本の 頭註	重刊本の 受容	備考
26	15	•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大全唐本前下有請字’	• 同初刊本文	• 不受容
27	15	•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洪當作弘’	• 本文 ‘洪’으로	• 不受容
28	15	• 少師觀文殿大學士致仕魏國公贈太師諡正獻陳公行狀	• ‘燾當作椿’	• 同初刊本文	• 不受容

그러나 『朱文酌海』의 初刊本과 初刊重印本 및 重刊本에서는 이들 校勘記가 각각 조금씩 달리 취급되고 있다.

愚伏이 광해군 14년(1622)에 『朱文酌海』를 著述하면서 校勘하여 註釋한 도합 28건의 頭註는 初刊本에서는 권14에 수록된 <從事郎監潭州南嶽廟劉君墓誌銘>의 ‘者字疑誤’의 1건을 제외한 27건이 頭註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初刊重印本에서는 이들 28건 모두가 頭註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參判公 李舜이 인조 26년(1648)에 嶺營에서 初刊本을 간행할 당시에 도합 28건의 頭註 중에서 1건의 板刻이 누락되었으나, 同春堂의 跋文이 수록된 효종 4년(1653)의 初刊重印本에서는 初刊本에서 누락되었던 ‘者字疑誤’의 1건의 註釋이 초간본에서와 같은 頭註의 형태로 添刻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初刊本(仁祖 26, 1648) 卷3 第38葉



重刊本(憲宗 13, 1847) 卷3 第38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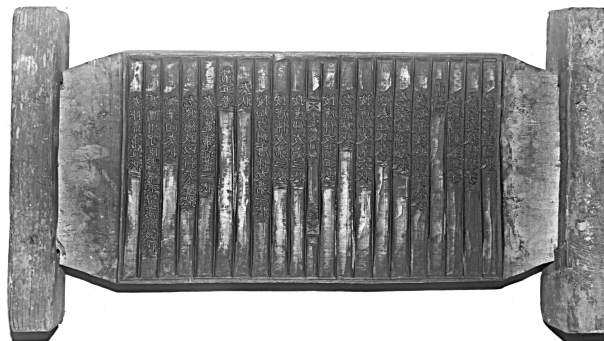
<寫眞 5> 『朱文酌海』의 欄外註文 校勘記

현종 13년(1843)에 尙州의 愚山書院에서 刊行된 重刊本에는 愚伏이 광해군 14년(1622)에 「朱文酌海」를 著述하면서 校勘하여 註釋한 도합 28건의 頭註는 모두 刪去되었으나, 6건은 愚伏의 校勘이 本文 속으로 受容되었으며 21건은 愚伏의 校勘이 受容되지 않은 채 初刊本에서의 本文과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권14의 <程君正思墓表>에 있는 ‘間恐作憫’의 우복의 校勘은 初刊本の ‘間’이나 愚伏의 校勘인 ‘憫’으로도 受容되지 않은 채 오히려 ‘間’으로 校正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文脈上 初刊本の ‘間’이 올바른 正文인 듯하며 重刊本에서 ‘間’으로 수록된 것은 아마도 刻手의 誤刻으로 인한 것인 듯하다.

본 연구의 底本은 奎章閣 소장의 「朱文酌海」 16卷 12冊本(奎966)³⁹⁾을 影印한 版本이나, 그 중에서 卷1만은 16卷 8冊本(奎2857)의 筆寫本으로 대체된 影印本이다. 이 저본의 권2의 卷頭에는 ‘侍講院’이라는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侍講院에서 世子의 敎育用으로 활용되었음⁴⁰⁾을 알 수 있는 판본이다.

아울러, 현재 安東에 소재하고 있는 韓國國學振興院에는 同春堂의 <跋文>이 수록된 孝宗 4년(1653) 板本の 木板이 소장되어 있으며, 소장된 木판은 完本 390板의 중 73板이 缺落된 殘板 317板의 實物이 보존되어 활용되고 있다.⁴¹⁾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研究所 所藏)

<寫眞 6> 「朱文酌海」의 木板

39) 鄭經世 著, 朱文酌海.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孝宗 4(1653) 跋].

16卷12冊: 四周雙邊, 22.4×16.4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5.5×23.5cm.

跋: 昭陽大荒落(癸巳, 1653)五月日門人恩津宋浚吉(1606~1672)敬書.

所藏本: 卷1은 後寫補充本.

印記: 侍講院, 春坊藏, 帝室圖書之章.

40) 鄭經世 著, 「朱文酌海」.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奎章閣, 2005. 冊上. p.12.

41) 韓國國學振興院 木板아카이브:

http://mokpan.ugyo.net/mokpan/mokpanList.do?sessionId=VnVqufQQUJi7UbwoN4wPGoDs0tljs2kaqHYdJycrJmNYmYg06vIvv6oLUaqAa55M.www2_servlet_all

<表 8> 「朱文酌海」木板의 現況⁴²⁾

區分	篇 名	數 量	
		現存	缺落
目錄	(01·02)(03·04)(05·06)(07·08)(11·12)(13·14)(15·16)(17·18)	8	1
卷1	(01·02)(03·04)(09·10)(11·12)(13·14)(15·16)(17·18)(19·20) (21·22)(23·24)(25·26)(27·28)(29·30)(33·34)(35·36)(38·37) (39·40)(41·42)(43·44)(45·46)(49·50)(51·52)(57·공)(58·공) (59·권13·19)	25	5
卷2	(01·02)(03·04)(05·06)(09·10)(11·12)(13·14)(19·20)	7	3
卷3	(01·02)(03·04)(05·06)(07·08)(09·공)(10·공)(15·16)(17·18) (19·20)(23·24)(27·28)(31·32)(37·38)(39·40)(43·44)(35·공)	16	8
卷4	(01·02)(03·04)(05·06)(공·10)(11·12)(15·16)(17·18)(21·22) (27·28)(31·32)(33·34)(35·36)(37·38)(41·42)	14	8
卷5	(01·02)(03·04)(05·06)(07·08)(11·12)(15·16)(19·20)(21·22) (23·24)(25·26)(29·30)(31·32)(33·34)(35·36)(39·40)(41·42) (43·44)	17	5
卷6	(01·02)(03·04)(05·06)(07·08)(09·10)(11·12)(13·공)(14·공) (15·16)(17·18)(21·22)(23·24)(25·26)(27·28)(29·30)(31·32) (33·34)(35·36)(37·38)(41·공)(43·44)(51·52)	22	1
卷7	(01·02)(03·04)(05·권9·26)(9·10)(13·14)(15·16)(19·20) (21·22)(23·24)(25·26)(27·28)(31·32)(35·36)(37·38)(41·42) (43·44)(45·46)(47·48)(49·공)	19	7
卷8	(01·02)(03·04)(05·06)(09·10)(11·12)(13·14)(15·16)(17·18) (19·20)(25·26)(29·30)(31·32)(33·34)(39·40)(41·42)(43·44) (45·46)(47·48)(49·50)	19	6
卷9	(01·02)(03·04)(05·06)(07·08)(09·10)(13·14)(15·16)(17·18) (21·22)(23·24)(27·28)(31·32)(33·34)(35·36)(37·38)(39·40) (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 (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	32	4
卷10	(01·02)(03·04)(05·06)(07·08)(09·10)(11·12)(13·14)(15·16) (17·18)(19·20)(21·22)(23·24)(27·28)(29·30)	14	1
卷11	(01·02)(07·08)(11·12)(13·14)(15·16)(21·22)(25·26)(27·28) (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 (45·46)(47·48)	18	7
卷12	(01·02)(03·04)(05·06)(09·10)(11·12)(13·14)(15·16)(17·18) (19·20)(23·24)(25·26)(27·28)(29·30)(31·32)(33·34)(35·36) (37·38)(39·40)	18	2
卷13	(01·02)(03·04)(05·06)(07·08)(09·10)(11·12)(15·16)	7	2
卷14	(01·02)(03·04)(05·06)(07·08)(11·12)(15·16)(19·20)(21·22) (23·24)(27·28)(29·30)(31·32)(35·36)(37·38)(39·40)(41·42) (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 (59·60)(63·64)(65·66)(69·72)(70·71)(공·73)(공·74)(공·75)	32	7

42) 慶尙北道 安東市 陶山面 退溪路 1997에 所在한 韓國國學振興院의 木板研究所에서 提供한 資料에 의한 것이다.
資料提供에 協助해주신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研究所 朴淳所長께 感謝드린다.

區分	篇 名	數 量	
		現存	缺落
卷15	(01·02)(03·04)(07·08)(09·10)(11·12)(13·14)(15·16)(17·18) (19·20)(21·22)(23·24)(25·공)(26·공)(27·28)(29·30)(31·32) (33·34)(35·36)(37·38)(41·42)(43·44)(45·46)(47·48)(49·50) (51·52)	25	2
卷16	(01·02)(03·04)(05·06)(09·10)(11·공)(12·공)(13·14)(15·16) (17·18)(19·20)(21·22)(23·24)(25·26)(29·30)(31·32)(33·34) (35·36)(37·38)(39·40)(45·46)	20	3
識	(1·공)	1	0
跋	(1·공)(3·공)(4·공)	3	1
合計		317	73

性理學을 통치이념으로 開國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性理大全」과 「四書」 및 「五經」 등의 性理學과 관련된 經傳들을 수입하여 간행하면서 理想國家의 건설을 위한 정치와 제도의 기틀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과 함께 性理學에 대한 연구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朱子大全」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始發은 退溪로부터 비롯되어 愚伏에 이르러 1차의 완성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朱子는 孔子와 孟子 및 程子 등을 거치면서 전승된 性理學을 集大成한 巨物이다. 이러한 朱子의 性理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朱子의 저술을 통하여 政派와 學派를 초월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구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愚伏의 「朱文酌海」가 退溪의 「朱子書節要」와 함께 朱子의 「朱子大全」을 이해하는 중요한 텍스트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朱文酌海」의 編纂과 刊行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5. 結 論

崇儒抑佛의 정책적 기반에 性理學을 통치이념으로 건국된 朝鮮은 통치이념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과 그 실현을 위하여 건국 초기부터 「性理大全」·「五經大全」·「四書大全」·「朱子大全」·「朱子語類」·「近思錄」 등 朱子의 性理學에 관련된 儒學書들을 輸入하고 刊行하여 普及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朱子哲學 및 학문의 결집이라 할 수 있는 「朱子大全」은 朝鮮에서만도 4차에 걸쳐 刊行·普及됨으로써, 朱子學에 대한 이해와 함께 朱子書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 그와 관련된 연구서들이 편찬되고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愚伏도 평소 “朱子의 글은 日星처럼 빛나고 河海처럼 廣大하여 義理와 文章이 찬란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여겼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평생토록 朱子書를 매우 좋아하였다.

조선조에 『朱子大全』에 관한 본격적인 文獻的 研究는 退溪 李滉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書簡이 사람의 재주와 학문의 高下 뿐 아니라 學問에 입문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흥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문장이라 여겨서, 명종 11년(1556)에 『朱子大全』에서 書簡만을 대상으로 學問에 관계되면서 일상에서 실천이 가능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抄節編輯한 『朱子書節要』를 편찬한 바 있었다.

그러나 退溪의 『朱子書節要』에는 서간을 제외한 그 어떤 문장도 선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항상 아쉽게 여겨왔는데,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광해군 14년(1622)에 退溪의 學脈을 이은 愚伏 鄭經世는 『朱子大全』 가운데서 <詞>·<賦>·<詩>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大體와 관련되어 收容에 절실하거나 학문에 관련되어 수용에 절실한 내용을 중심으로 訂選하여 『朱文酌海』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朱文酌海』의 편찬은 평소 朱子書에 심취해 있던 愚伏이 선조 37년(1604)에 스승인 西厓로부터 退溪의 『朱子書節要』를 전해 받고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朱子書節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編輯을 구상하여 勞心焦思한 끝에 『朱子大全』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選本을 編纂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愚伏의 『朱文酌海』에 관하여 각종 특징과 관심사항 등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朱文酌海』는 愚伏이 광해군 14년(1622)에 『朱子大全』 중의 <封事>·<奏劄>·<議狀>·<奏狀>·<申請>·<辭免>·<書>·<雜著>·<序文>·<記文>·<跋文>·<銘>·<箴>·<贊>·<表>·<祭文>·<碑>·<墓表>·<墓誌銘> 등을 선정하여 집대성함으로써 방대한 『朱子大全』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편찬한 節要書 형태의 選本이다.

둘째, 『朱文酌海』의 편성체제는 1차적으로 『朱子大全』의 체제를 따랐으나, 한 두 곳에서만 愚伏 자신의 見解대로 조정되어 있다. 즉 『朱子大全』 권99에 수록된 <社倉事目>을 『朱文酌海』에서는 권11의 <建寧府崇安縣五夫社倉記>의 뒤로 옮겨 수록하고 그 사실을 밝힌 것과 <書札>에서 『正集』의 뒤에 『別集』과 『續集』을 옮겨 수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서간의 이러한 編次는 2차적으로 『朱子書節要』의 편차방식을 따르고 있어, 愚伏이 退溪의 思想을 繼承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朱文酌海』의 문헌학적의 편집수록은 保存과 選取 및 刪去·組合(編輯)·校正·補完 등의 다양한 편집방법을 사용하여 愚伏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朱文酌海』에 나타나는 ‘疑’·‘疑作’·‘當作’·‘疑當作’·‘恐當作’·‘恐作’·‘疑誤’·‘當乙’·‘退溪曰’·‘疑是’·‘脫’·‘作’·‘有’·‘乙’ 등 愚伏의 校勘學的 註釋은 그 자신의 主觀과 思想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로 인하여 『朱文酌海』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광해군 14년(1622)에 愚伏에 의하여 선정·편찬된 『朱文酌海』는 인조 26년(1648)에 參判 李昫에 의하여 처음으로 嶺南觀察營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유통되었으며, 효종 4년(1653)에 同春堂 宋浚吉이 流通本에다 <跋文>만을 새로이 더 새겨 붙여서 重印된 판본들이 조선시대 후기

에 이르기까지 유통되었다. 그러다가 현종 13년(1847)에 尙州의 愚山書院에서 “丁未仲夏愚山新刊”의 刊記가 수록된 重刊本이 새로이 출현되면서 다시금 후학들의 寶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朱文酌海」의 편찬은 평소 朱子書에 심취해 있던 愚伏이 스승인 西厓로부터 退溪의 「朱子書節要」를 전해 받고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退溪가 「朱子書節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編輯을 구상하고 勞心焦思한 끝에 이루어낸 勞作일 뿐 아니라 「朱子大全」의 選本인 「朱子書節要」를 계승하여 편찬되었다는 점 및 조선의 性理學이 實踐의인 禮學과 實學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柳希春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眉巖集」. 韓國文集叢刊 第34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宋浚吉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同春堂集」. 韓國文集叢刊 第106-107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鄭經世 著. 「朱文酌海」.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奎章閣, 2005.

趙翼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 「浦渚集」. 韓國文集叢刊 第85輯.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朱熹 著, 學民文化社 編. 「朱子大全」. 東洋古籍影印叢書(影印本). 全16冊. 大田: 學民文化社, 2004.

朱熹 著, 朱子大全翻譯研究團 共譯. 「朱子大全」. 全13冊. 光州: 全南大學校 哲學教育研究中心 · 大邱韓醫大學校 國際文化研究所, 20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강진석. “退溪 朱子書節要 編輯의 方法的 特徵과 意義.” 「退溪學學報」 第113號(서울: 退溪學研究院, 2003). 51-94.

류준필. “退溪 「朱子書節要」의 朱子文獻 編輯 方式.” 「退溪學研究」 第14輯(安東: 退溪學研究院, 2008). 95-121.

柳鐸一. “「朱子書節要」註釋의 脈絡과 그 註釋書들: 外來文獻의 韓國的 受容 II.” 「書誌學研究」 第5·6合輯(서울: 書誌學會, 1990), 5-22.

柳鐸一. “朱子書節要의 編纂·刊行과 그 後響.” 「退溪全書」 <李滉 著, 退溪學研究院 編, 「退溪全書」. 서울: 退溪學研究院, 2003.> 卷23. pp.viii ~ ix.

우인수. “愚伏 鄭經世의 政治社會學的 位相과 現實對應.” 「退溪學과 儒敎文化」 第49號(大邱: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1), 99-136.

李東熙. “高峯 奇大升의 「朱子文錄」 編纂과 당시 그의 思想의 一斷面.” 「儒敎思想研究」 第36輯(서

을: 韓國儒教學會, 2009), 205-230.

이봉규. “愚伏 鄭經世의 學問活動과 『朱文酌海』의 性格.” 『朱文酌海』 卷上(서울: 서울대학교 奎章閣, 2005). 7-28.

최경훈. 『朝鮮時代 刊行의 朱子著述과 註釋書의 編纂』.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大學院. 2008.

최경훈. “朝鮮前期 朱子著述의 刊行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2號(서울: 書誌學會, 2009). 453-489.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2013.

韓國國學振興院木板아카이브:

<http://mokpan.ugyo.net/mokpan/mokpanList.do;jsessionid=VnVqufQQU>